

## 향수를 선물로 받고...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한 인 규

벌써 몇 년 전의 일이다. 그 해 생일날에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아가씨들로부터 명품향수를 선물로 받았다. 그 순간 나는 고마운 생각보다 약간 당황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내 몸에서도 이른바 노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향수를 뿌리고 다니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며칠이 지난 후 그 아가씨들에게 향수를 선물로 준 이유를 물어보았다. 내 몸에서도 노인 냄새가 나기 때문인가 하고 다그쳤다. 그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었다. 다만 옷차림이 언제나 단정한 노교수님께서 더 우아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고 말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 나도 이제 별수 없이 늙어가는구나’ 하는 서글픈 생각에 씩씩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어차피 인생은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이지만...

나이를 먹으면 몸에서 특이한 ‘노인 냄새’가 나는 것이 사실이다. 늙은이들이 입고 있는 옷에서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거처하는 방과 집에서도 특유한 노인 냄새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 집을 방문하면 창문과 방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역시 이 때문이 아니겠는가?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접근하기 싫어하는 것도 다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닐까?

최근에 우리 집의 청소와 빨래를 맡은 도우미 아주머니로부터 참 기분 좋은 소리 한 가지를 들었다. 그것은 교수님 댁은 전혀 노인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실이든 아니든 듣기가 무척이나 좋은 얘기였다. 비결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우리 내외는 샤워를 자주 하고 아무리 추운 겨울철이라 해도 가끔 문을 열어 환기를 한다. 거기다가 요새는 나도 집을 나가기 전에 옷과 컛가에 향수를 살짝 뿌린다. 그러니 집에서 노인 냄새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덜 나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매우 신경질적이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데 비하여 냄새, 더욱이 악취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편인 듯하다. 한국 백성들은 서구사람들이 대단히 싫어하는 생선냄새(어취)나 심지어 구린내(분취)까지도 잘 견디는 것 같다. 더운 여름날에 사람이 밀집한 버스나 지하철을 타 보라.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쿨리한 냄새가 불쾌할 정도로 나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샤워를 자주 하는가 하면 화장실도 수세식이어서 좋지 않은 냄새를 많이 줄여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날 시골에서는 인분을 논밭에 살포하여 분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였으나 지금은 이런 현상도 다 사라진 지 오래다.

그렇다 해도 우리네 서민들 특히 노인네들이 향수를 조금 사용함으로써 세상을 향기로 충만하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향수 사용량이 선진국 백성들의 그것보다 훨씬 적다고 한다. 이제 이웃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나이를 먹어가면 말수를 줄이고(shut up), 목욕을 자주 하고(clean up), 욕심을 버리고(give up), 늙을수록 깨끗이 입어야 한다(dress up). 또한 주머니를 열어서 돈을 쓸 줄 알아야 하고(open up), 화장을 깨끗이 하고 향수를 뿌리며(make up) 살아야 된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을 다 지키기는 어렵겠지만.

이른 봄에 우리 집 부근에서 산책을 하노라면 비닐하우스 농민들이 두엄을 교체하는 경우를 본다. 이때 이 두엄냄새가 내 코에는 어찌 그리 향기로운지 모른다. 젊은 사람들은 냄새가 역겨워서 손가락으로 코를 막지만 말이다. 나는 세상에 이런 향수가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어릴 때 시골에서 경험하던 분노 냄새를 그리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내가 뿌리고 다니는 향수 냄새도 좋고 철철이 피어나는 꽃향기도 아름답거니와 두엄에서 나는 이 향기로운 냄새를 어찌 좋다 하지 아니 하리오.

우리가 이 고해 인생을 살아가면서 웃는 사람과 함께 웃고, 우는 이웃과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이는 정녕 삶의 향수를 즐기는 것이 아닐까?